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2.14(화) ~ 2022.2.18(월)

제공일시 2022 02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 1. 21년만 입고 버린다면 이 브랜드...돈줄 맞은 이유는

- 패션업계에서 '의식 있는'이란 의미의 컨셔스(conscious)와 패션(fashion)의 합성어 '컨셔스 패션(양심적 패션)' 바람이 거셴
- 전 세계 양심적 패션 시장 규모는 2019년 63억5000만달러(7조6100억원)에서 2023년 82억5000만달러(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패션기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기업들은 자라, 유니클로, H&M 등 SPA(생산·유통·판매 일괄)브랜드**
- 최근엔 스파오, 네파 등 국내 패션기업들도 친환경 제품 개발과 디지털 패션쇼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배출량 저감에 역량을 집중

(매일경제, 2022.02.21.) 이영욱·강영운 기자  
<https://news.naver.com/article/newsapp/03/000464983?date=20220221>

## 2. 개인정보 엿보는 맞춤형광고의 종말

-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를 관리하는 **구글이 모든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 기록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개인정보 정책 방향 발표**
-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애플 iOS보다 2배 이상 높은 만큼, 개인 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맞춤형 광고로 매출을 올려온 전 세계 기업들에 큰 파장이 예상
-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 제3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크게 위축되고, 구글이나 애플의 광고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매일경제, 2022.02.16.) 나현준·황순민·김대은 기자  
<https://news.naver.com/article/newsapp/03/000462955?date=20220217>

## 3. 한국, 국제특허 출원 세계 4위...삼성전자·LG전자 3~4위

-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이 2020년 대비 3.2% 증가한 2만678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5개국(한국·중국·미국·일본·독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삼성전자는 3041건으로 세계 3위, LG전자는 2885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

(뉴시스, 2022. 2. 14) 김양수 기자  
[https://news.naver.com/view/ViewArticle.naver?id=1000020221\\_000170131&cid=10001000000000000000](https://news.naver.com/view/ViewArticle.naver?id=1000020221_000170131&cid=10001000000000000000)

## 4. 한국기업 여성이사 비중, 중동국가 빼면 '세계 꼴찌'

-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중이 세계 72개국 중 네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 의결권 자문사들은 한국시장 의결권 행사지침에 여성이사가 없는 기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 등의 재선임안을 반대할 것을 권고
- 여성 CEO의 리더십과 이사회 다양성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겨레, 2022.02.16.) 한광덕 기자  
[https://www.han.co.kr/economy/economy\\_general/2022.02.16n](https://www.han.co.kr/economy/economy_general/2022.02.16n)

## 1. 금감원 “특사경,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ESG 공시 기준 정립”

- 금융감독원은 올해 인력과 직무 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
- 또한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관업무를 평가해 주관업무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ESG 관련 글로벌 공시를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평가 절차 개선 예정
- ESG 채권 평가 시 준수기준, 평가서 공시 방법 등을 마련하고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 심사도 강화. 또, ESG 금융상품별로 투자 비율 등 상품공시제도도 마련

(이데일리, 2022. 2. 14) 김소연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NewsView.asp?NewsID=2022021400144&Chk=1>

## 2. RE100 ‘제3자 전력구매계약’ 실적 전무

- 정부가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수단 중 하나로 도입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이 시행 8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제3자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발전 사업자가 기업(전기 사용자)과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음. **전력 거래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꼽혔으나 사업자를 끌어들이 유인이 부족해 활성화하지 못함**
- 정부는 직접 PPA를 위한 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세부안 고시를 놓고 고민 중임

(전자신문, 2022. 2. 14) 변상근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21400135>

## 3.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한다

- 정부가 탄소 배출량 표기 의무화, RE100 선언 등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해 ‘환경성적 인증 개편’을 추진, EU·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 수출 시 경쟁력 확보를 기대
-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 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

(전자신문, 2022. 2. 15) 이준희 기자  
<http://www.newspaper.com/article/newsapp/ESG/0002988113440-20220215>

## 4. "ESG 채권 사업보고서 게재 점검"…금감원, '그린워싱' 들여다본다

- 금융감독원이 2021년 사업보고서에서 ESG 채권 발행 및 사용 실적이 제대로 공시됐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사실상 ‘그린 워싱’ 등 부실 공시 사례는 있는지 점검할 뜻으로 해석되며, 최근 ESG 채권의 발행액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관련 공시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임
- 임직원 현황이나 보수, 자사주, 주식매수선택권 등 지배구조 부문도 사업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했는지 점검할 방침

(서울경제, 2022.02.17) 심우일 기자  
<https://www.sejaily.com/news/news20220217>

## 1. “준법경영 부탁드립니다”…증권사, 기업평가에 ‘ESG 지표’ 강화

- ESG를 중요한 투자 지표로 삼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분석 리포트에 ESG 지표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는 추세
- 현재까지 총 4개 증권사(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가 투자 리포트에 ESG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음
- NH투자증권은 2020년부터 증권사 종목리포트에 ESG 인덱스와 이벤트를 정리해 제공, 신한금융투는 ‘ESG 인사이트’를 통해 ESG 평가요소별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 이행률을 보이는지 분석, 대신증권은 한국ESG연구소에서 받은 ESG 등급을 토대로 평가해 보고서에 기재, SK증권은 ‘ESG 하이 라이트’를 통해 ESG 등급변동 추이, 채권발행내역, 관련 뉴스 등을 정리
- 증권업계는 ESG를 강조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뉴스1, 2022. 2. 15) 손엄지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769304>

## 2. 총 앞두고 거세지는 ‘주주 행동주의’ 바람

-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행동주의 바람이 불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주주 권익을 앞세운 자산 운용사들의 주주권 행사가 늘어나는 추세
- 안다자산운용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 서한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은 한라홀딩스의 지분을 확보하며 주주권 행사를 예고

(이투데이, 2022. 2. 14) 김예슬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214000125577>

## 3. ‘쫄개기 상장’ 암초 만난 이커머스, 기업공개 “고? or 스톱?”

- 이커머스 3사 SSG닷컴,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이 연내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목표로 상장 심사 시점을 타진하고 있음
- 각 기업의 기업공개(IPO) 성패가 향후 온라인 유통업계 경쟁 구도를 판가름할 수도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 단,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의 일반 주주 이익과 상충한다는 ‘쫄개기 상장’ 논란이 맞물리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고르기 위한 고민이 깊어짐

(주간한국, 2022. 2. 14) 이재형 기자  
[https://www.hankook.com/page/economy/20220214/20220214E00345602.html?\\_efw](https://www.hankook.com/page/economy/20220214/20220214E00345602.html?_efw)

## 4.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 TOP 10…삼성전자 1위 재탈환

- 지난해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 자리를 카카오에 내줬던 삼성전자가 올해 다시 정상을 탈환해 주목을 받음
- 14일 사람인에 따르면, 성인남녀 2264명을 대상으로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20.7%)가 1위를 차지. 다음으로 ‘카카오’(12.6%), ‘네이버’(8.2%)가 각각 2위와 3위에 오름.
- 전체 응답자들이 해당 기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연봉’(25.7%).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19.6%), ‘회사 비전, 성장 가능성’(17.8%), ‘정년보장 등 안정성’(14.3%), ‘대외적 평판 등 기업 이미지’(5.4%),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지원’(4.8%) 등이 차례로 꼽힘

(브레이크뉴스, 2022. 2. 14) 문홍철 기자  
<http://www.breaknews.com/87286>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2.14(화) ~ 2022.2.18(월)

제공일시 2022 02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4

## 플라스틱 생산 제한하는 글로벌 조약 마련되나? 일부 산업계 반발로 삐걱

- 로이터통신은 28일 개최되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유엔 회원국이 플라스틱 조약 마련에 합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부 산업계 반발로 삐걱대고 있다고 보도. 2차 회의는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개최. **100여국의 유엔 회원국이 총회에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로벌 조약 기틀을 마련할 방침**

- 로이터통신은 총회 관계자 소식통을 인용해, "조약은 플라스틱 생산 및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힘. 특히, **플라스틱 생산 상한선 설정, 일회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생산 비율의 단계적 축소,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률 개선 등이 조약 내용으로 논의**. 다만, 이번 2차 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조약 방향성만 합의하고,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조직해 구체적인 조약 내용을 구성하도록 할 방침. 조약 마련에 회원국이 최종 합의하면 INC 협상을 통해 2년 내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버금가는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이 탄생될 전망

- 2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조약 마련에 합의한다는 소식에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다우(DOW) 등 굴지의 석유화학기업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지만, **일부 산업협회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한다는 조약 협의를 막기 위해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음**. 그중,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의 반대가 가장 거셴. ACC는 글로벌 기업 연합을 구축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할 계획

- 최근 'ACC'는 브뤼셀에 위치한 '플라스틱 유럽(Plastics Europe)'과 함께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에게 UNEA 협정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 ACC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약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음식물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깨끗한 물의 접근이 감소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 한편, 플라스틱유럽은 코로나19로 일회용 마스크, 장갑 등의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제약을 받으면, 공공보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

- **ACC와 플라스틱유럽이 플라스틱 조약 마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플라스틱 생산 제한'이며, 플라스틱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한 대신 폐기물 수집, 재활용 확대 및 화석연료 사용 저감 기술 도입 등 업계 매출 감소를 야기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약 내용을 구성하자는 것

-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조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유출만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입장**. 2017년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중 9%만이 재활용되었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강함

-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담은 조약 마련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같은 반응은 플라스틱 사용률이 높은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나타나고 있음**.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위한 국제적 조약 마련에 환영의 의사를 지난달 표했으며, 28개국 2만여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소스(IPSOS)의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남

(Reuters, 2022.2.18) John Geddie 외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global-plastic-production-2022-02-28/>  
(Reuters, 2022.2.18)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global-trade-out-plastic-pollution-2022-02-28/>